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⑯ 여래수량품 제16

부처님의 본체

'제2장 훌륭한 수단'이라는 '방편품(方便品)'이 이론적이며 공간적으로 사물의 참모습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제16장 영원한 생명'의 수량품(壽量品)에서는 종교적이며 시간적으로 부처님(즉 진리)의 본체(법신, 法身)를 밝힌 것으로서, 이 두 장은 둘이면서 하나임과 동시에 하나이면서도 둘, 즉 불이이이(不二而二) 이이불이(而二不二)인 상즉(相卽)의 관계이다.

앞의 '제15장 종지용출품'에서 구도자 마이트레야(彌勒)를 대표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품고 있는 놀라움과 의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16장 '여래수량품'이다.

첫머리에 부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 "그대들은 여래의 진실한 깨달음의 말을 똑똑히 듣고 이해하여 굳게 믿도록 하라"고 강조하셨다('三誡'). 이에 대해 대중들도 역시 세 차례에 걸쳐 "세존이시여, 원하고 원하오니 그 진실을 설해 주소서. 저희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간청하고('三請') 다시 한번 더 청한다('重請').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를 받아 "그대들은 여래의 본체('如來秘密')와 자유자재한 능력('神通之力')을 자세히 들어라"고 하시며('重誡') 비로소 설법을 시작한다. 이렇게 3성 3청(三誡三請) 중청중성(重請重誡)의 형식을 거친 후 말씀하신 부처님의 설법 내용은 지금까지의 석가모니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부처님은 우주탄생~소멸까지의 '영원한 절대진리'를 인격화한 것

물론 부처님의 본체에 대해서는 〈법화경〉의 개경(開經)인 〈무량의경(無量義經)〉 '덕행품(德行品)'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지만 그때는 시간성(時間性)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무량의경〉에 의하면 무량의(無量義)에는 체무량(體無量)과 용무량(用無量)이 있다. 부처님의 본바탕('法身')은 한량없이 크기 때문에 체(體)가 무량하다는 것이니, 다시 말해 오직 한정된 우리들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세계 속에 있는 진실한 모습, 즉 현상 세계와 겹쳐서 존재하는 '실재'의 세계인 실상의 본체('佛')는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무한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한량이 없다'고 한다. 또 실상, 즉 부처님이라는 단 하나의 진실한 세계, 다시 말해 절대의 세계('無爲')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든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본인 '실상(佛)'의 '작용(用)' 또한 무한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작용(用)이 무량'한 것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절대진리를 인격화한 것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몸을 나타내신 석가모니세존을 부처님이라 하고, 또 영원히 불멸하는 상주(常住)의 법신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 둘을 두고 의아심을 품는 경우가 바로 앞장의 '종지용출품'에서의 미륵보살을 비롯한 대중들의 경우이다. 물론 석가세존도 부처님이시고,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진리의 부처님도 부처님이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인도에서는 깨달은 분('覺者')을 붓다(佛陀: buddha), 즉 부처님이라 했고 또 붓다란 진리에서 왔다하여 여래(如來: tathagata)라고 했다. 이는 변화하는 현실상(現實相)의 본래적인 상태, 즉 현실상의 진리는 변화하는 것이지만, 이 변화한다는 것의 영원상(永遠相) 혹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진리는 절대 불변하는 것(이를 무위(無爲)라 한다)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여(如: tatha: 있는 그대로)' 라든지 '진여(眞如: tathata: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고 부르며 부처를 여래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진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침이라고 말하며 핵심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제행(諸行)은 무상(無常)이다'고 하며 이 세상의 만물만상은 '변화'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세속적인 진리는 '변화한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진리란 변화하지 않는 것('不變')인데 변화하는 것을 진리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틀림없이 반문하겠지만, '이 변화한다는 진리는 영원토록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불변한다는 것이다' '공(空)' 또는 '공성(空性)'이라는 것은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무릇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이것은 공성, 즉 실체(實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변화하는 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 즉 불변하는 '그 절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대적 진리'를 인격화한 것이 부처님이다. 그렇다고 '공'이 부처님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듯 부처님의 본체는, 아득한 그 옛날 즉 우주가 생겨나서부터 마지막날까지 영원토록 항상 있는 절대 진리를 이름하여 우리는 부처님이라 한다.

▩무설정사 조실

여름특집

마하 고사난다

(캄보디아 불교 최고 지도자)

1953년 프랑스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새로이 출발한 캄보디아.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고 내분이 계속되더니 1976년, 폴 포트(Pol Pot)가 캄푸치아(Kampuchea) 인민정부를 수립했다. 극단적인 모택동주의 정책을 표방한 폴 포트 정권은 집권 3년 8개월 동안, 지식층과 도시민 200만여명을 죽음으로 몰았다.

이른바 '킬링 필드(Killing Field)'의 나라 캄보디아. 이 대재앙에 맞서 비폭력 평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국민들에게 재건의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캄보디아 불교의 최고 지도자 마하 고사난다 스님(Samdech Preah Maha Ghosanananda). 왜 이 세상은 갈등 투성이며 전쟁이 끊이지 않는지, 고사난다 스님의 일생은 이에 대한 고뇌와 해답을 찾는 일생의 연속이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과 함께 '참여불교(Engaged Buddhism)' 운동의 선구자인 고사난다 스님의 일생은 우리 시대, 진정한 '보살의 길'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보살심…전쟁·고

◇'킬링필드의 살아있는 보살'로 불리우는 고사난다 스님은 숭산스님, 달라이라마, 틱낫한 스님과 함께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받고 있다.

숲속의 고승, 캄보디아 어린이 아버지, 15개국어를 구사하는 빈이자 학자, 서구 학인들의 명상자, UN의 평화중재자, '캄보디아 아있는 국보', '살아있는 진실' 그를 표현하는 말들은 너무나 많

세계적인 평화·환경운동 지 참여불교운동의 선구자인 스님

고사난다 스님은 ——

킬링필드 대재앙

"살아있는 국보"·

보디아 내전에 참여한 시민들을 하는 비폭력운동을 벌였고, 피 지원과 국가 재건을 위해 지원 끼지 않았다. 그의 따스한 인간 위대한 자비심은 그를 '캄보이 간디'로 불리우게 했다.

1929년 캄보디아 타케오에서

마하 고사난다

캄보디아의 고통은
이 고통으로부터
위대한 동정심은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사람은
평화로운 가족은
평화로운 공동체는
평화로운 나라는
모든 존재들이 행

생명구제 서원하면 마음 더없이 고요

자비심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뿌리

1976년 폴 포트 정권이 집권한 이래 3년 8개월 동안, 캄보디아 불교는 업청난 타격을 입었다. 3600개의 사찰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한 때 6만여명에 달하던 승려들 대부분이 박해를 받거나 학살당했다. 1979년 폴 포트 정권이 무너진 후, 승적에 여전히 남아있는 스님들은 3000명에 불과했다. 고사난다 스님은 이들 살아남은 소수의 스님 중 한 분이었다.

캄보디아에 내전이 발생했을 때 그는 태국 남부의 숲속에서 명상과 고행을 하며, 극심한 혼란으로부터 도망치듯 떠났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가족들은 대부분 캄보디아에서 폴 포트 군인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의 조국을 삼킨 엄청난 비극에 고사난다 스님은, 동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려는 듯 엄청난 원력으로 비폭력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캄보디아-태국 국경에 위치한 모든 캄보디아 난민촌에 사케오(Sakeo), 카오이당(Khaoeedang) 사원 등의 절을 지었으며, 이 캠프 저 캠프를 다니며 설법을 하였다. 1978년, 고사난다스님이 처음으로 사케오(sakeo)난민촌에 도착한 순간, 피난민들의 고통에 찌든 얼굴에는 위대한 사랑이 번졌다. 오랜 불교 전통이 피난민들의 의식속에 떠올랐다.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우는 피난민들의 울음은 캠프에 울려 퍼졌다. 많은 이들은 '마치 보리수가 불타듯이, 깊이 잠들어 있던 그들의 마음을 불법(佛法)이 다시금 일깨운 날'이라고 말했다.

사케오 캠프를 최초로 방문한 이후, 고사난다 스님은 평화의 정착과 캄보디아 재건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동했다. 그것은 당파주의와 무능력, 부패한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민족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숭고한 시도들이었다. 부처님께서 하신 것처럼, 고사난다 스님의 노력은 사랑과 자애로움으로 민중들에게 스며들었다. 고사난다 스님은 그 힘이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것이라고 믿었다.

1991년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마하 고사난다는 마치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투쟁과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데려가 명상과 설법으로써 고통으로 제거하고 평화로 이끄셨듯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첫 번째 '평화 행진'을 이끌었다. 마을과 마을을 통과하며 나아가는 평화행진에는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따라붙었다. 이 행진을 통해 고사난다 스님은 '평화의 다리'가 되어 전쟁으로 갈라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었다.

그는 다방면의 비폭력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평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이슈들 예를 들면, 무계획적인 벌목과 채광 등을 해결하는데도 앞장섰다. 부드러운 자비심과 쉼없는 용기를 대변하는 고사난다 스님. 그를 마주 대한 후 그의 미소와 자비스런 친절함을 경험하는 순간, 영혼을 치유하는 감동의 물결이 신도들에게 전해진다.

그는 폴 포트 정권의 대학살이 끝난 후, 처음에는 홀로 승려를 교육시키고 사원을 건립하면서 캄보디아 불교의 재건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가슴은 흔들림없이 자비롭고 즐거움에 충만해 있었으며, 순수한 사랑의 가르침을 펼쳤다. 그는 누군가 필요로 하는 이가 있다면 그의 바랑에서 옷을 꺼내 주거나, 그의 발우에서 음식을 건내주었다. 전쟁이 주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같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고사난다 스님은 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보리심'에 있다고 말한다.

"그 마음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윤회하는 생명 모두를 연민하는 마음에서 됩니다. 그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내고, 모 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려는 마음에서 보리 나옵니다. 보리심은 모든 생명들을 구제하기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서원이며, 모든 생을 위해 언제든지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원력 다. 불법(佛法)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완전히 자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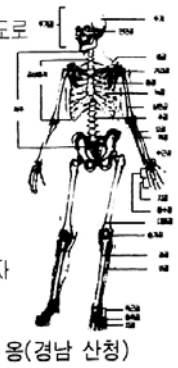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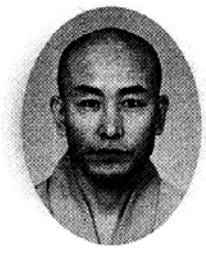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화엄기도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고통과 괴로움은 자신이
지은 죄
병의 원인은 인연
따라 오는 법
고침도 인연 따라
낫는 법입니다.



■ 적용사항 : 원인 모를 병고
마음 병(정신)

■ 문 의 : 031-336-3734
011-9711-3734

경기도 용인시 중앙동 325-8

해 원 사

영가천도「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부터 온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에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매월 합동 천도재 봉행, 천도재상담 전화 및 무료책자 신청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567-6820, 041)567-6822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여름·가을·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P : 011-369-2732